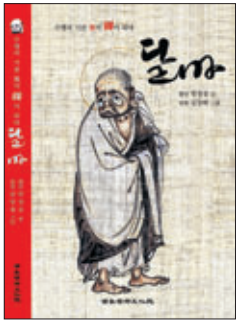


달마어록 70여점 그림으로 탄생

김창배 작가 <달마>출판 기념전시



선목화가 담긴 김창배 씨가 달마대사의 어록을 소설체로 엮은 <달마> 출판 기념 전시를 1월 15일~21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활안 한정섭 스님이 글에 김 씨가 삽화로 그려 넣은 달마 그림 70여 점을 전시한다.

모든 이들이 잠이 들어 하루의 피로를 잡자며 마감을 할 때, 잠을 자지 않고서도 긴 하루의 피로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그 이상으로 몸속의 에너지 생성으로 피로를 썩 날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붓을 들 때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고 편안함과 안정감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이렇게 작가는 선목화를 그리며 수행과 예술의 접목으로 '선목일여(禪墨一如)'를 지향한다.

깨달음의 상징 달마 선보여

1월 15일~21일 한국미술관서

한편, 담원 김창배는 금주 이남호 선생(1908~2001)으로부터 사사받았다. 동국대, 예원예술대 문화예술대학원, 화랑미술제, 롯데화랑, 북경화원 제백서 기념관, 교토 국제교류회관 등에서 33회 개인전을 가졌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서예문화, 현대미술대전 등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거쳤으며 국내외에서 200여 회 초대전을 가졌다. (02)736-7445 정혜숙 기자



담원 김창배 화백은 <달마>출판 기념 전시를 1월 15일~21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연다.

유심 문학 토크 나희덕 시인 초청

1월 15일 유심아카데미 세미나실서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의 서술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새때 대신 메아리만 쟁쟁 날아오른다/ 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려졌다 - 나희덕 <천정호에서> 전문

이번 문학토크에서는 정려된 시어들과 따뜻한 은유를 동반한 진솔한 시세계로 사랑 받고 있는 나희덕 시인과 함께한다.

시인 지망생들의 창작교과서로 불리는 나희덕 시인은 어두운 일상의 흔적을 밝고 맑은 소리로 끄집어내 건강한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심은 "기억의 되새김질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생생의 순간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나희덕 시인의 유심문학토크와 함께 의욕이 충만한 2014년을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는 김지너 시인이 맡는다. (02)739-5781 정혜숙 기자

유심이 새해 문학 토크에 조선대 문창과 교수 나희덕 시인이 초대됐다. 1월 15일 인사동 유심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불교미술 전승작가들 해외 반출문화재 재현

"잊혀진 문화재...또 다른 탄생", 2월 2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가 우리 작가들의 손으로 재현된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불교미술특례김만기 기획전 '잊혀진 문화재... 또 다른 탄생' 전을 2월 2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2·3전시실에서 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 산하 나우회 회원작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해외반출문화재 일본 동경박물관 소장 통일신라석조여래좌상 등 재현작 20여 점이 선보인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해외 반출된 한국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찾아가 보기 힘든 원작의 아우라를 재현작품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전한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독일과 일본 등에 흩어져 있는 해외문화재를 직접 찾아가서 실경하고 재현했다. 이러한 노고는 또한 불교미술 전승 작가가 걸어오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1937년 평양 원오리절터에서 발견된 소조여래좌상과 소조보살입상(일본 교토 후지이유리칸 등 소장)은 6세기 고구려 불교조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정용 작가는 흙으로 만든 거푸집과 함께 일련의 불상군을 재현해 보여준다.

한봉석 목조각장은 조선 후기 조각승 색난이 제작한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일본 고령미술관 소장, 1689년)을 옷칠기법으로,

또 금칠기법으로 표현기법을 달리해 조형적 대비감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목조 스님의 16세기 왕실발원 석가설법도(독일 쾰른 박물관 소장), 오세종 작가의 조선왕실초대(일본 고령미술관 소장), 김상수 작가의 나전칠칠전통, 이연옥 작가의 아미타팔대보살 내영도, 김동철 작가의 통일신라 석조여래입상(일본 동경박물관 소장) 등이 선보인다.

해외 반출된 불교조각과 회화 공예작품을 동시에 함께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다

통일신라석조여래좌상 등

독일과 일본 등의 해외문화재

작가들이 직접 보고와서 재현

20여 작품으로 탄생시켜

는 점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매력이다. 무엇보다도 김형진 작가의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문화재를 지켜낸 재일동포 고 정조문의 초상을 고려미술관 소장품으로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한껏 가슴을 적신다. 재현과 복원을 반복하며 작업하는 불교미술작가들의 작업세계는 깨달음을 향해 수행 정진하는 출가자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는 목조 스님, 주광관, 노정용, 김만기, 한봉석, 김동철,



월정사성보박물관은 해외반출문화재 재현작을 선보이는 '잊혀진 문화재...또 다른 탄생' 전을 2월 2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2·3전시실에서 연다. 사진 위는 한봉석의 '목조삼존불감' 아래 왼쪽은 목조 스님의 '석가설법도' 오른쪽은 노정용의 '원오리출토소조보살입상'.

김상수, 오세종, 김형진 등 10명이다.

한편,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 불교미술특례김만기展은 불교미술 전승 작가들이 더불어 사는 동시대 미적 교류를 위해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소통시키고자하는 작가가 열망이 담겨있는 기획전이다. (033)339-663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미주로 울려 퍼지는 불음의 향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미주 4개 도시 순회 공연

한국불교 미주 전법 50주년을 맞아 대한 불교소년소녀합창단(단장 황학현)이 '박범훈의 칸타타 부모은중송' 미주 순회공연을 떠난다. 미주 전법 50주년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13일~17일 총 미주 4개 도시를 순회하며 불음의 향기를 전한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한국불교의 미주 전법 50주년을 맞아 해외포교의 의지 제고를 위해서 마련된 행사다. 불교 어린이 합창단 사기 진작은 물론 국제감을 공유하고 불교 음악의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 마련

미주전법 50주년 기념

부모은중송 칸타타 공연

됐다. 또한 찬불가 및 한국민요 가곡 음악을 통해 불교의 효사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소년소녀합창단 30여 명을 비롯해 서울·경남불교합창단연합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는 연주회는 △미국 시애틀(1월 13일) △포틀랜드(1월 15일) △로스엔젤레스(1월 17일) △캐나다 밴쿠버(1월 18일) 등을 돌며 공연을 펼친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13일~17일 총 미주 4개 도시를 순회하며 불음의 향기를 전한다.

이번에 공연되는 부모은중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였다. 이번 공연은 불교소년소녀합창단을 졸업하고 국악인으로 성장한 김경미(이화여대), 한아름(중앙대), 한진수(중앙대)씨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대한불교소년소녀 합창단은 1993년에 설립돼 2,300여 회의 다양한 연주활동과 400여 곡의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 발표, 성인 합창곡 음반을 출판해 70여 명의 전공자를 배출했다. 그동안 불교예술의 전변화대와 인재양성 그리고 음성포교를 이어 왔다. 정혜숙 기자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건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호 명예 수강생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회담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아름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경각원 교감사를 맡고 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붓다 한 말씀

이미령 지음 | 248쪽 | 13,000원

이미령 1964년 강원도 비양사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 고대 진 교수의 밑에서 참어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강의와 힐링 필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영역) 부상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 교육원에서 전일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밖에 KBS (무명을 밝히고-보리산타의 시제), YTN (역시카레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는 등 특 킬링나스으로도 활동 중이다.